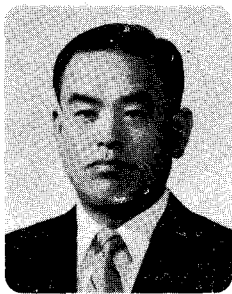


나의 제언

80年代 양계업을 성공으로 이끌려면



윤 두 진
(제일축산, 제일농장 대표)
(서울·경기 양계협동조합장)

무더운 여름밤 즐기차게 내리는 빗소리에 깊은 잠에 잠길 수가 없다. 간간이 앵앵대는 모기소리 또한 유난하다. 그런데 무서운 꿈속에 한없이 쫓기면서 꿈속에서 깨어나야 겠다는 생각 속에 애를 쓰다보니 온몸에 식은 땀이 흐른다

아 과연 꿈이었구나.

1979년의 축산업을 셈할 때 이러한 생각에 잠겨본다. 이유야 어디서 왔건 형불가형언(形不可形言)의 양계업이었다. 이러한 전대미문(前代未聞)의 극심한 불황이 다시 오지않기를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돌이켜 한국 양계의 근대사를 쓴다고 하면 1965년 외국의 종계에서 생산된 병아리가 일반 농가에 보급되기 시작한 때부터로 정하고 싶다. 짧은 5년간의 60년대 말은 미국의 유명한 종계의 전시장인양 대거 등장하였었고 종계장을 주축으로 사양 관리 세미나가 앞을 다투어 열렸으므로 단편적인 지식이지만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던 것이다. 여기에 비추어 배합사료 공장은 팔복할 만큼의 수적 성장은 있었으나 질적 개선면은 미흡한 상태로 유통되었으며 양계 규모 면에서는 장족의 발전을 보게 되었다.

양계업의 길잡이로 전문지의 창간이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시설면에서는 규모 확대로 인하여 케이지 양계로 변모하기 시작하여 짧은 시간에 거의 개체되었다.

1970년대는 양계 규모면에서는 많이 성장한 감이 있으나 질적면에서는 큰 발전을 이룩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된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분들이 모이면 대체로 생산은 농민이 하고 가격결정은 제3자가 정한다고 야단들이다.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풀이 해보면 농민들은 생산비에도 미흡한 가격으로 판매

를 해야만 하는 반면 유통 과정에서는 적지 않은 이윤이 보장되지 않으면 판매를 할 수 없다고 한다. 우리 농민들은 자기 생존권의 보호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농민들의 권익 수호의 한 방편으로 축산 협동조합이란 큰 조직을 이용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아직은 이 조직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 내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 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매우 아쉽다. 조직을 만들었으나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이에 관심밖에 있음을 엿볼 수 있다.

1980년 대망의 80년대와 희망과 기대 속에 맞이 하였지만 지나간 연대로 과거를 동경하게 되며 지나간 60년대가 더욱 좋았던 것 같다.

에너지의 무기화가 세계 경제를 뒤흔들어 놓았다. 우리 생명보다 더 값진것 같다. 이제 식량 보유국에서도 식량 무기화에도 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한때는 소고기 생산국의 기구화도 거론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하에서 80년대를 맞이 하였으니 과연 무엇을 대망하였던 말인가. 경제적인 빈곤이나 정치적인 불안에 대망하였다는 말일까. 아니다. 지나간 년대에서 이룩하지 못한 큰 뜻을 기필코 이룩하여 보겠다는 뜻에서 80년대를 대망으로 맞이 하였다고 생각된다. 이와같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나의 생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려고 하면

1. 경영합리화의 구체적인 실천

기장을 통하여 손익을 재빨리 발견함으로써 독자 경영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재빨리 추방하는 것이다. 계란 1개를 생산하여 판매하였을 때 1.2원의 이윤을 가지고 생산하다 보면 얼마나 세심한 살림이 필요한가 느끼게 된다. 10원 이하의 화폐는 전연 쓸모가 없는것같은 이때 1원이나 2원을 놓고 손익을 계산하여

나가자니 얼마나 잘아져야 하는지 모르겠다. 최저의 사료 효율이 모색되어야겠다. 즉 오랜 세월을 양계를 하였다라고 하는 분 가운데도 계사 내의 환기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아 닭의 생명을 단축하면서 닭을 기르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닭도 환경 위생이 가장 중요하다보니 먼저 깨끗한 환경 조성을 하여 사료 효율을 대폭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인력난의 시대를 이미 맞이 하고 보니 성력화를 통하여 인력을 최소로 줄이고 1인당 관리수를 최대로 늘이는 관리 체계가 곧 등장할 것으로 생각된다. 성력화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닭위주(爲主)의 양계에서 사람 위주의 양계로 전락하게 되며 이로써 각종 전염병의 피해를 모면할 길이 없다.

2. 생산의 계열화

부로일러의 계열 생산만해도 그렇다. 선진국에서는 이런 제도가 자연발생적으로 필요에 의하여 성립되어 졌으며 또 발전하고 있어 계열 생산의 대열에 끼어 들지 않으면 부로일러 생산 자체를 할 수 없을 만큼의 합리적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한다.

농수산부에서는 최고기 소비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자급을 꾀하는 한편 생산이 빠르고 값이 싼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양산하여 소비자의 불편도 없이 양축 농가를 보호하겠다는 정책이 나왔으니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그러나 최고기의 값을 높여서 돼지고기나 닭고기 편으로 소비를 유도하여야 겠다는 길만은 바로 정해졌으나 그 대안이 좀 미흡한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느냐가 문제이다. 즉 이웃 일본의 소비 풍조를 보면 최고기는 맛으로 먹고 돼지고기는 관습으로 먹고 닭고기는 경제적으로 먹는다고 한다. 즉 닭고기의 생산만 하더라도 규격화가 아직은 이루어져

있지를 않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부로일러의 도계 처리 문제이다. 비싼 쇠고기의 소비자를 향하여 값이 싸고 영양이 고루 갖추어진 닭을 위생 처리하여 어디서나 주부등의 불편없이 사 갈 수 있으며 또 부분육의 개발등을 통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부위를 살 수 있는 제도가 하루 속히 이루어 져야겠다.

그러나 우리 업계는 모여 앉으면 좋은 방법은 백출(百出)하고 있지만 이렇다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외국 자본이 이 시장을 보고 우리나라 상품을 시도하고 있으니 말이다.

오늘의 시대는 자기 P. R.의 시대라고 한다. 여기 견주어 볼 때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닭고기나 계란에 대하여 얼마나 소비자를 향하여 폭 넓게 내 생산품을 P. R. 하고 있는가 미국의 라업공사에서는 연간 약 650만\$의 자원을 생산자로 부터 염출하여 장기적 방법으로는 국민학교 어린이서부터 각종 매스콤을 통하여 P. R.을 전개하였더니 국민 일인당 2개의 소비 증가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보았다. 우리는 이미 국제 경쟁이란 냉혹한 현실에 살고 있다. 즉 사료 원료에서 종계 제반시설 수의약품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자원과 기술등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이 없다. 소고기의 수입에서 돼지고기 양고기 계란가루까지 수입이 시작되었는데 우리 생산 농민은 객관적인 삶은 엄연히 국제 사회에 모든 것을 내맡기고 있으면서도 경영적인 면에서는 지나칠 정도로 주관을 믿고 있으니 말이다. 나 자신이 나를 지킬 수 없는 현실에 살고 있으면서도 참 살아 갈수 있는 활로에 대하여서는 지극히 폐쇄적이다. 지금 한강 상류에서는 폭우가 쏟아져 거센 물결이 흘러 내려오고 있는

데 이 물결을 향하여 제어할 준비가 안 되었으니 좀 기다려 달라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오늘의 산업은 이 극심한 경쟁을 굳은 의지와 슬기있는 경영으로 타개하지 못할 때 마침내 그 대열에서 떨어지게 마련이다. 즉 적자생존의 원리를 따라가게 될 것이다.

3. 유통 과정의 개선

유통 과정의 합리화야 말로 모든 산업 분야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생산에서 소비자 입에 전달되게 하는 것이다. 자기 상품의 P. R.에서 소비자의 입에 옮겨놓기 까지의 단계의 간소화, 정확한 등급 제도의 정착화, 신선한 영양 식품을 안전하게 공급하므로써 국민 보건에도 이바지 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생산에 이바지 하여야 할 것이다. 등급 제도만 하더라도 세란 선별기의 도입이 매우 시급하다.

4. 생산자 단체의 육성

생산자 단체의 육성 발전이란 곧 우리들의 권익수호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런 원리를 몰라서 아직 이루어 지지않은 것일까.

오늘날까지 한 공동 목표를 놓고 많은 이론은 전개되어 왔지만 어떤 핵심에 이르지 못하는 감마져 든다. 즉 한 단체의 구성원이 자기 개성이 다르며 규모면에서도 큰 차가 있고 경영면에서도 여러가지 차이점이 있다. 그러한 까닭에 어떤 한걸이 모색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 또한 불신풍조와 지도자를 용립하여 섬기려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인것 같다. 오늘 우리들이 처해있는 현실을 나 개인의 힘만 가지고서는 이 역경을 뚫고 나가기 매우 어렵다. 그러기에 나와 우리들의 힘이 모아져서만이 나도 살고 우리 모두의 삶이 보장될 것이다.